

배포일시	2011.04.13.(수) 11:00 (총6매)	보도시점	즉시
담당부서	대전지방기상청 인천기상대	담당자	대 장 박 남 철
		전화번호	032-761-9969

<서울·인천·경기지역 1개월 전망 (2011년 4월 21일 ~ 5월 20일)>
 - 4월 하순과 5월 상순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음 -

-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음.
- (기온) 4월 하순~5월 상순까지는 남서류의 유입으로 평년보다 높겠음.
- (강수량) 4월 하순에는 평년보다 적겠으나, 5월 상순~중순에는 남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슷하겠음.

1. 날씨 전망

- 열대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낮은 라니냐 상태(-0.6℃)가 지속되고 있으나 점차 회복되겠음.
-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, 5월 상순과 하순에는 남쪽으로 지나가는 저기압의 영향을 한두 번 정도 받겠음.

【 1개월 전망 요약 】

전국	평균 기온	강 수 량
4월 하순	평년(13~16℃)보다 높겠음	평년(19~62mm)보다 적겠음
5월 상순	평년(15~18℃)보다 높겠음	평년(23~81mm)과 비슷하겠음
5월 중순	평년(15~19℃)과 비슷하겠음	평년(24~66mm)과 비슷하겠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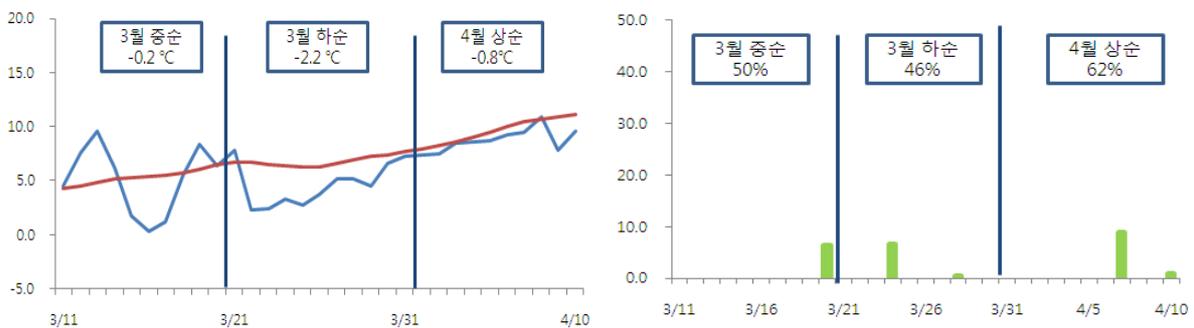
서울·인천·경기	평균 기온	강 수 량
4월 하순	평년(13~14℃)보다 높겠음	평년(24~26mm)보다 적겠음
5월 상순	평년(15~17℃)보다 높겠음	평년(33~37mm)과 비슷하겠음
5월 중순	평년(15~17℃)과 비슷하겠음	평년(37~45mm)과 비슷하겠음

- (4월 하순)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음. 일시적인 남서류의 유입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나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음.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날이 있겠으나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.
- (5월 상순)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남서류의 유입으로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음.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한두 번 정도 받아 비가 오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.
- (5월 중순)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포근한 날이 많겠으나 남쪽골의 영향으로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.

※ 4월 하순까지는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아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겠으니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.

2. 최근 날씨 동향

- (기온 동향) 3월 중순에는 동성 고기압과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교대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았으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였음. 이동하여 지나가는 찬 고기압과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교대로 받아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었으며 기온은 평년보다 낮았음. 4월 상순에는 예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기온은 평년보다 낮았음.
- (강수량 동향) 3월 중순(19~20일)에는 북쪽으로 지나가는 기압골과 남쪽을 지나가는 저기압의 영향을 차례로 받아 비가 내렸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였음. 3월 하순(24~25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, 28일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)에는 지역적으로 비와 눈이 자주 내렸으나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음. 4월 상순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(6~8일 남서쪽에서 접근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비, 10일 북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) 비가 내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였음.
- (황사) 3월 14일 올해 첫 황사가 백령도에서 관측되었으며, 19~21일에 서울·인천·경기지방에 황사가 관측되었음. 4월 2일에는 백령도에서 황사가 관측되었음.



[그림] 서울·인천·경기지역 최근 1개월 평균기온(좌)과 강수량(우)의 일변화(2011.3.11~2011.4.10)

- ※ 첨부 1 : 최근 10년간의 기후 특성(4월 21일 ~ 5월 20일)
- ※ 첨부 2 : 최근 10년간의 특이기상 현황(4월 21일 ~ 5월 20일)
- ※ 첨부 3 : 최근 1개월 기후통계 분석

【 알 린 】

- 1개월 전망 전문은 “기상청 홈페이지→날씨→특보·예보→장기예보”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음 1·3개월 전망은 2011년 4월 22일 오전 11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.

○ 평균 기압계

-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으나 그 후면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음.
- 이동성고기압이 통과할 때에는 날씨가 맑고 기온의 일교차가 크며, 이동성고기압의 이동 경로에 따라 영서 또는 동해안 지역에서 고온현상이 나타남.
- 남쪽으로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 및 남해안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림. 저기압이 발달할 때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8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나타남.
- 동진하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남서~북서풍으로 서풍계열의 바람이 우세함.

○ 우리나라의 평균기온과 강수량 등의 경향

- (평균기온) 15.7℃로 4월 하순(13.6℃)에 비해 5월 상순(16.6℃)에는 기온 상승 폭이 크고, 5월 중순(16.9℃)에는 기온 상승 폭이 작음.
- (평균 강수량) 109.4mm로 5월 상순(38.7mm)에 가장 많은 강수가 나타남.
(4월 하순 35.0mm, 5월 중순 35.8mm)
- (일조 및 습도) 일평균 일조시간은 약 7시간, 습도는 62.7%이었음.

[첨부 2] 최근 10년간의 특이기상 현황(4월 21일~5월 20일)

○ 이상 저온

- (2010년 4월 하순) 전국 평균기온은 10.7℃(평년편차 -3.5℃)로 2000년 이래 최저이어서 농작물 생육이 불량하였음.
- (2010년 5월 1일) 전국 평균 최저기온은 4.4℃(평년편차 -5.4℃)로 2000년 이래 5월 일최저기온 중 가장 낮았음.

○ 이상 고온

- (2005년 4월 28~30일) 3일 연속 고온 현상이 발생하였음. 특히 4월 28일 전국 평균 최고기온은 27.7℃(평년편차 +6.7℃)로, 2000년 이래 4월 일최고기온의 극값 1위를 기록(2004년 4월 21일과 함께 극값 1위) 하였음.
- (2009년 5월 9일) 경상남북도 대부분 지역 및 전라도 일부 지역에서 2000년 이래 5월 상순 낮 최고기온 중 최고 1위를 기록하였음.

○ 집중 호우

- (2002년 4월 29~30일)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. 특히 경기도와 경북 북부에 많은 비가 왔으며, 29일에는 경기도 문산의 일 강수량이 95mm로 2000년 이후 4월 일강수량으로서는 극값 1위를 기록하였음.

○ 황사

- (2001년 4월) 전국의 평균 황사 발생일수는 6.8일(평년 2.3일)이어서, 잦은 황사의 출현으로 눈병 및 호흡기 질환 환자가 급증하였음.

[첨부 3]

최근 1개월 기후통계 분석

[인천 기상요소 값]

요소 기간		평균 기온 (°C)	평균 최고 기온 (°C)	평균 최저 기온 (°C)	강수량 (mm)	습도 (%)	강수 일수 (일)	서리 일수 (일)	일최저 0도미만 일수 (일)	일최심신적설 (최근 1개월)
최근 1개월 (03.11~04.10)	금년	6.4	10.7	3.2	21.5	62.4	4.0	3.0	6.0	2011.03.24 3.0cm
	평년	7.2	11.8	3.6	41.5	63.2	6.5	3.8	3.8	
	평년차 (평년비 %)	-0.8	-1.1	-0.4	-20 (51.8)	-0.8	-2.5	-0.8	2.2	
4월 상순 (04.01~04.10)	금년	8.8	13.4	5.5	8.0	67.2	2.0	1.0	0.0	
	평년	9.4	14.3	5.7	15.0	63.3	2.0	0.4	0.1	
	평년차 (평년비 %)	-0.6	-0.9	-0.2	-7.0 (53.3)	-3.9	0.0	0.6	-0.1	

<용어 해설>

- 평년값은 1981년부터 2010년까지 30년 평균값임.